

# “전주세계소리축제로 주말 나들이 떠나요”

24일까지 전통·현대·융복합 등 개성·취향따라 골라보는 음악여행 펼쳐져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이제 24일 폐막공연까지 3일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소리축제는 주말 공연을 소개했다.

**△공간성의 확장, 우리 소리 원류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무대

먼저 24일 오전 10시, 자연의 풍광과 느낌의 미학이 가득한 경기전의 아침 <김대진&박재홍 : 포렌즈> 공연을 알렸다.

특히 소리축제의 매진행렬을 이끌고 있는 올해 대표 기획공연 '국창열전 완창판소리 <춘향가-신영희>(22일), <심청가-조상현>(23일)'는 전주동천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소리를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 공연은 오후 3시에 펼쳐지며 유료로 진행된다. 예약은 필수로, 이미 매진된 공연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공연장을 방문을 권했다.

또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기 전 오후 1시 30분, 전주동천 별채에서는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판소리 아카데미'(22일~23일, 무료)가 준비돼 있다. 신영희, 조상현 명창의 소리 삶과 예술 이야기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이어 24일 오후 1시부터는 전주대사습장에서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 <홍보가-한운경>, <춘향가-정운형>, <수궁가-이이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젊은 소리꾼들의 재기발랄한 판소리 무대를 통해 우리 소리가 가진

모미를 느낄 수 있다. 23일 오후 8시 전당 연지홀에서는 '시나위-춤 그리고 씩김'(유료) 공연을 통해 진도씻김굿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동시대 우리 음악, 전통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무대**

22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Concert Meditation <반향 : 목>'은 침묵을 주제로 한 음악과 소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줄 예정이다. 또 오후 7시 30분 전당 연지홀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형식의 공연 '전하제일탈공작소 <오셀로와 이아고>'가 펼쳐지고, 전당 놀이마당에서는 전제 무료 공연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타악 연주를 선보이는 타악연주자 '김소라'의 무대와 파키스탄의 수피즘에서 비롯된 전통음악 카탈리와 한국의 민요를 접목시킨 '탈 TAAI'의 신비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2023 소리 프론티어는 올해 선정된 세 팀 중 '전주판소리합창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가운데, 얼터너티브 갠트 '핑크데이즈'와 무속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요소와의 융합이 돋보이는 '매간당'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세네갈, 에스토니아, 동아시아

등 월드뮤직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동시대성을 담은 각 나라의 민속음악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자리에서 감상해보는 것은 소리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이다.

올해 선보이는 두 개의 공연 중 한중일 3국의 협업 무대 '동아시아 콘서트 <호우지시절>'는 23일 오후 2시 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며, 콘스탄티노플과 소리꾼 정상희의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는 같은 날 오후 3시 전당 명인홀 무대에 오른다.

22일 대자연과 에스토니아 민속음악에 영감을 받은 음악을 선보이는 싱어송라이터 '마리 칼룬(에스토니아)', 페르시아와 서아프리카 음악의 콜라보 무대인 '콘스탄티노플&아블라에 시소코(캐나다X세네갈)', 23일 오래된 호주 원주민의 노래와 동시대의 즉흥성을 담아낸 '헨드 투 어스(한국X호주)'는 전당 놀이마당에서 만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동아시아 3국 대표팀들의 공연도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기에 좋은 무대다. 23일 오후 1시와 2시 20분 전주대사습장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워크숍-세네갈, 에스토니아'도 있다.

**△모든 세대 아우르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

소리축제에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며, 가족과 어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다채롭다.

22일 오전 9시 40분과 11시 30분 전당 명인홀에서는 강강술래를 소재로 전통음악, 춤, 노래, 민속놀이 등이 어우러진 '국립민속국악원 <강강술래에 떨어진 달님>'이 펼쳐지며, 24일 오후 5시 전당 연지홀에서는 리틀엔젤스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전북지역의 개성 넘치는 어린이 음악가들의 무대 '전북 어린이음악제'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고성오광대 기본무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오감체험 <마실가듯, 탈춤>(무료)'이 열리며, 같은 시간 전당 모악당에서는 투크 제법의 설치작품 <가이아> 아래에서 열리는 '어린이 월드뮤직 워크숍 <한국X호주-헨드 투 어스>'를 즐길 수 있다.

**△전라북도민 댄스단체와 함께하는 폐막공연 <이희문 오방춤과 춤을>**

2023 소리축제 폐막공연은 팔색조의 면모를 갖고 있는 소리꾼 이희문이 <이희문 오방춤과 춤을!> 공연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이희문을 주축으로 농부 그리고 밴드 허송세월과 함께 경상도 민요와 전통 양식에 대한 재해석을 새롭게 시도하는 무대로 펼쳐지며, 전라북도민댄스 참가단체 남원시무용단, 팬시라인댄스, 포스댄스키즈, 포스댄스컴퍼니 춤동인이 함께 참여해 시민,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댄스파티로 열린다. 2023 소리축제 폐막공연은 2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며, 대망의 피날레는 불꽃놀이로 장식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추석을 맞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옥외프락에서 '2023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라는 주제로 명절 연휴기간 온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방문해 옛 생활도구 체험, 민속놀이 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요즘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랑형과 맷돌, 지게 등 우리 전통 생활도구를 직접 만져보거나 사용법을 배워 체험해 보고,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도 실제 즐겨 볼 수 있다.

또한 '놀이마당 오감'과 함께 준비한 전래놀이 부스에서는 비석치기와 말뚝이 떡 먹이기, 딱지치기 등 추억 속 놀이들과 고무신 던지기, 투호, 망쭈기, 초대형 윷놀이, 강강술래 등 전래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전래놀이를 체험하고 활동지에 스탬프를 받아 제출하면 민속놀이 만들기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가위 연휴기간 중 모든 체험행사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체험료와 입장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 '고창, 돌우물의 바람' 설치미술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고창 석정웰파크 병원 옆 야외마당에서 전라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고창, 돌우물의 바람' 설치미술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한국메세나협회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단이 주관하고 고창문화관광재단,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전북은행, (주)하이트진로, 일일삼한방병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전라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고창, 돌우물의 바람'은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48일간 자연·환경·생명·위기·재탄생·치유를 주제로 설치미술, 리사이클체함을 진행한다. 특히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고창농악보존회, 국악예술단고창의 공연과 무료 체험 등이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추석공연 '중추기절'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2023 추석 공연 '중추기절'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전통타악그룹 천공의 무대로 문굿과 길놀이, 북청사자놀이, 바나놀이, 웃다리 농악 등 신명나는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국악연주단의 강강술래, 단막극 홍보가 중박터는 대목, 남도민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체험을 통해 간단한 간식 제공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 공예육선'

명인 명장들의 공예작품을 온·오프라인 경매로 만나볼 수 있는 공예육선이 주말을 뜨겁게 달군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23일 오후 오후목대 전통정원에서 명인 명장들이 만든 공예작품 17점을 경매로 판매하는 '명인명장 공예육선'을 진행한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명인명장 공예육선'은 작가들에게는 공예품의 판로 개척을, 일반인들에게는 우수한 공예품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경매에 오르는 작품은 △우산장 윤규상의 '지안산' △목조각장 김중현의 '원앙세트' △전주나죽장 이신임의 '백선' △박재유기장 이종덕의 '좌중' △부거리용기장 안시성의 '용기집시세트' △전주나죽장 최대규의 '나전문반' 등 전북 무형문화재 6점과 전북지역 공예 작가들의 작품 11점을 포함한 총 17점이다. /장은성 기자

##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남원 문화재 야행' 내달 7~9일 개최

남원시에서는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가을밤의 정취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 남원 문화재 야행'을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야행은 광한투원, 요천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기간과 함께 열리는 올해 행사는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주제(8夜)로, 30가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8夜는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시(夜市), 야화(夜話),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으로, 먼저 야야경(夜景)으로 별빛 쏟아지는 광한루 달빛 풍경과 요천광장의 낙화놀이 △야로(夜路)는 보물찾기, 육왕상

제 길놀이 퍼레이드 등이 제공된다.

△야시(夜市)에서는 광한투원 창건 당시 이야기를 관객소통형 상형극으로 체험하며 밤에 듣는 문화재 이야기가 펼쳐지며, △야화(夜話)를 통해 남만정원 광한루와 함께한 멋진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고 △야설(夜說)은 남원시립농악단의 농악 공연으로 관객들을 태평성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하며, △야시(夜市)에서는 플라마켓, 버스킹 공연이 예천광장에서 펼쳐져 달빛 힙터가 될 예정이다.

또한 △야식(夜食)은 월궁주막으로 요천광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야숙(夜宿)을 통해서 은하수 아래 한옥에서의 하룻밤 묵어 보며 남원 문화재야행의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amwonigh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남원문화재



야행은 광한투원의 밤을 거닐며 남원만의 특별한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